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해외사례조사 보고

2010. 11.

기획조정팀 최 영 근



1. 조사 개요

1. 목적

- 호주 멜버른이 세계 최고 스포츠도시로 선정됨
 - 멜버른이 두바이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Sport Accord Convention)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스포츠 도시 2010(Ultimate Sports City 2010)’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 스포츠의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격년으로 열리는 이 시상에서 2006, 2008년에 이은 연속 세 번 수상임
- 따라서 호주 멜버른의 대표적 스포츠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따른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일정 및 대상

- 조사기간 : 2010.10.5(화)~10.12(화), (7박 8일)
- 조사지 : 호주 골드코스트, 시드니, 멜버른
- 조사자 : 기획조정팀 최영근 초빙연구위원

3. 방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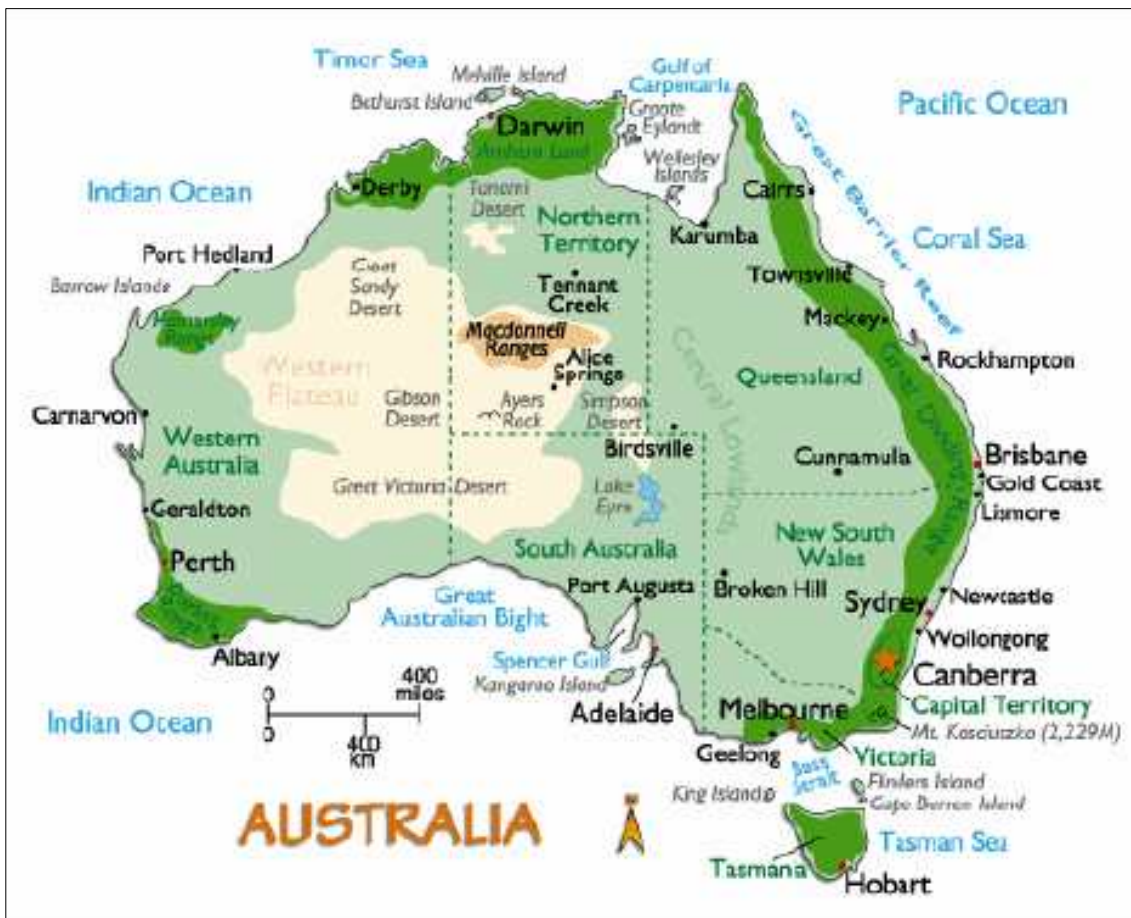
- 브리스번
 - 골드코스트 : Marina Mirage, F1 자동차 경주장
- 시드니
 - 올림픽 공원
 - 시드니 항구
- 멜버른
 - Albert Park
 - 축구장, 크리켓구장, 야구장, 풋티구장, 실내외 수영장,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어린이 놀이시설 등
 - F1 경주장
 - 알버트 파크 골프코스(Albert Park Golf Course)
 - 론볼링장
 - 멜버른 파크(Melbourne Park)
 -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Melbourne Cricket Ground, MCG)
 -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
 - 렉서스 센터
 -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II. 조사 주요내용

1. 호주(Australia)

□ 개요

- 수도 : 캔버라(Canberra, 인구 31만명)
- 면적 : 7,682,300km²(한반도의 약 25배)
- 인구 : 20,264,082명(2006년)
- 민족 : 영국계(80%),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
- 언어 : 영어
- 종교 : 기독교(73%), 무교(25%), 불교·이슬람교·유대교(2%)



<그림 1> 호주의 주요 도시 위치도

- 호주
 - 관광수입 : 25,062,000,000달러(2008년)
 - 관광지출 : 18,729,000,000달러(2008년)
 - 외래 방문객 : 5,586,000명(2008년)
 - 국외 여행객 : 5,808,000명(2008년)
 - 오락 문화비 지출 : 6.6%(2006년)
- 호주인들에게 스포츠는 신앙 같은 존재이며 럭비 유니언(전통 럭비)에서부터 호주 고유의 AFL(호주풋볼리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푸티(footy)에 열광하고 여름내내 뒤뜰과 해변 백사장에서 크리켓을 즐김
 - 특히 많은 호주인이 단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으며 테니스, F1, 경마, 골프, 크리켓, 농구, 하키와 각종 풋볼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임
- 또한, 호주정부는 12억 호주달러(1조3천억원 상당)를 들여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대대적인 스포츠 진흥사업 펼침
 - 이는 지난해 확정된 스포츠 지원금 3억2천만 호주달러(3천500억원 상당)에 비해 4배에 가까운 규모로 호주스포츠 역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지원임(연합뉴스, 2010.10.17)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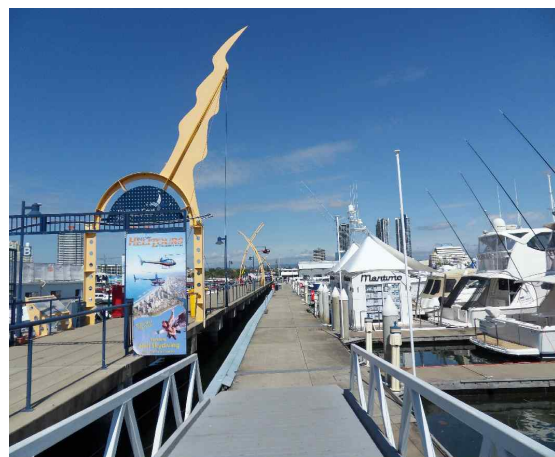
- 골프의 천국으로 알려진 호주에는 약 120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음
- 인구 비례로 볼 때 호주인구 1200명당 골프장이 1개씩 있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도 멤버용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이 모두 있지만, 방문객이라도 멤버용 골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골프를 칠 수 있음
- 또한,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는 골프장비나 골프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음
- 전국에 1,500여 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호주에서 골프가 인기가 없으면 도리어 이상하겠지요. 퍼블릭 코스와 회원제 코스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챔피언십 코스이고 다수는 멋진 경치로 유명한 코스임
- 상당수의 코스가 럭셔리 리조트와 연결되어 있어 휴가와 코스를 연계하는 패키지를 제공. 호주의 톱 골프 리조트들은 남부 퀸즈랜드에 집중되어 있으나 뉴사우스웨일즈, 서호주 또한 명성 높은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음
- 호주의 세계 정상급 선수로는 그레그 노먼, 제프 오길비, 아담 스콧, 캐리 웹 등이 있습니다. 호주의 우수한 골프 대회는 호주 PGA 선수권, 호주 마스터즈 및 호주 오픈 골프임

2. 주요 방문지역 및 현장조사

1) 골드코스트

○ 일반사항

- 호주 총인구 : 20,264,082명(2006년) - 2,200만명(남한 면적의 78배, 국민소득 4만5천\$)
- 골드코스트 인구수 : 약 50만명
- 인구 50만에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최고 200만명까지(크리스마스 전후) 늘어남
- 골드코스트는 마리나 시설과 요트 제조업체가 들어서기에 안성맞춤인 곳
- 골드코스트시는 2000년 쿠메라 지역에 요트 제조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70여개의 요트 제조업체와 요트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유치함
- 공사규모만 1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리비에라, 쿼트렉스, 무스탕 등 세계적인 요트 제조업체들이 들어선 이곳 단지는 호주 최대 규모임
- 골드코스트 해변에서는 인디 자동차 경주와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 경마대회, 요트경기, 철인 3종경기, 마라톤, 카니발 쇼 등 다양한 축제가 1년내내 펼쳐짐
- 해변에 설치된 야외 그릴에는 가스와 온수가 무료로 제공돼 관광객들은 즉석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도 함
- 부자와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들게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골드코스트의 성공 비결임





<그림 2> Marina Mirage

(1) 골프장

- 호주 골프장수 : 1,580여개
- 골드코스트 골프장수 : 65여개
- 시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 퍼블릭 골프장
- 플레이 : 1~4인
- 비용 : 약 원화 12만원정도(카트료 포함)
 - A급 : 로얄 파인즈 골프클럽 등 6개 정도
 - B급 : 65\$(약 15개 정도)
 - C급(나머지 골프장) : 30~40\$
- ※ 호주의 남북쪽 지방에 선사인 골프장, 펠리칸 골프장 등 유명 골프장 존재
- 오후 1시이후 티업시 그린피의 40~50% DC
- 주중, 주말 요금의 차이는 없고 다만, 주말 등은 부킹의 어려움이 있음
- 회원권 시세(보통은 연회원)
 - B급 : 1,000~1,500\$, C급 : 500~700\$
- ※ 골프장끼리의 연계가 잘됨 : 한 골프장 회원이면 다른 골프장에서도 DC 받음
(년 1회 휴무 :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일)
- ※ 퍼블릭 골프장 입장시 복장의 규제는 없고, 호주 성인남녀는 대부분 골프는 한번은 라운딩 했음

(2) 자동차 경주

- 자동차 경주일 : 2010. 10. 14 ~ 10. 16
- 일반도로에서 펜스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경주를 치르고 경주가 끝난 다음 구

조물 철거

- 처음은 흑자였으나 지금은 적자, 또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많음



<그림 3> F1 자동차 경주장(평상시는 일반도로)

(3) 기타

- 정년이 남성(65세), 여성(59세 8개월)
 - 1주일 1일 운동 : 연금 수령가능(원화 200만원~240만원정도)
 - 운동 : 골프, 론 볼링 등
- 호주의 총국가수입중 10%가 관광수입임

2) 시드니(Sydney)

- 시드니 인구 : 4,395,000명(2009년) - 약 500만명(호주 전체의 약 1/4)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 ※ 교민수 : 약 20만(유학생 포함)
-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골프장 : 1,200여개
- 골프는 서민의 스포츠로써 그린피가 약 25~30\$
-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주도이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식민지가 있던 자리. 그 식민지는 영국에서 온 선단 퍼스트 플리트(First Fleet)의 선장인 아서 필립(Arthur Phillip)에 의하여 시드니 코브(Sydney Cove)에 1788년에 세워졌음
- 이 도시의 거주민을 "시드니사이드(Sydney'sider)라고 함. 시드니는 유명한 도시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아님
- 남서쪽으로 300km에 특별구인 수도 캔버라가 소재하지만, 경제나 문화 규모에서

도 시드니가 훨씬 활발하고 이 때문에 시드니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 2000년에는 하계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지가 되었음
- 시드니 올림픽공원(Sydney Olympic Park)
 - 시드니 올림픽 공원(Sydney Olympic Park)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홈부시(Homebush) 지역에 640 헥타르 면적으로 조성된 스포츠 공원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조성된 공간
 -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 경기나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 시드니 페스티벌, 빅 데이 아웃과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고 시드니 도시철도의 올림픽 공원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올림픽 공원 역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시드니 하버에서 페리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고 시드니 올림픽 공원은 시드니 올림픽 공원 위원회에 의해 운영됨
 - 이 지역은 본래 홈부시만(Homebush Bay) 지역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시드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바꾸었음



<그림 4>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 모습

3) 멜버른

- 인구 : 3,813,000명(2009년) - 350만명
- 교민수 : 15,000명(유학생 포함)
-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빅토리아주(州)의 필립 베이(Phillip Bay)주변에 위치한 멜버른은 빅토리아주의 주도

- 다른 여타 호주도시들이 정부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멜버른은 기업인들과 자유정착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멜버른은 시드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시드니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오락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한다면 멜버른은 이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면서 세련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적당한 도시로서 호주의 제2의 도시임

[멜버른 세계 최고의 스포츠 도시 3회 연속 수상 쾌거!]

- 멜버른이 지난 28일 두바이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Sport Accord Convention)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스포츠 도시 2010 (Ultimate Sports City 2010)’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 스포츠의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격년으로 열리는 이 시상에서 2006, 2008년에 이은 연속 세 번 수상임
- 2010년에는 25개의 도시들이 후보지에 올랐으며 2006년에서 2014년 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벤트 유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수상 도시가 선정되었고 멜버른은 2010년 연중 끊임없이 열리는 다채로운 스포츠 이벤트와 다른 도시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훌륭한 제반 시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례없는 획기적인 기획력과 환상적인 날씨가 수상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음
- 멜버른은 호주 오픈 테니스(Australian Open Tennis), F1 그랑프리(Formula One Grand Prix),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Spring Racing Carnival), 호주 마스터 골프대회(Australian Master Golf) 등 세계 유수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며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빅토리아 주정부는 멜버른의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이벤트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프라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골프장

- 멜버른에 134개 골프장이 있으며 이중 80%가 퍼블릭
 - 퍼블릭 골프장은 구청에서 소유(관리도 구청에서 함)
- 프라이빗 골프장은 비회원 1팀(4명) 입장이 가능하나 부킹시간은 골프장측에서 제시한 시간에 라운딩, 또한 품위 등 체크(1일 그린피는 250\$)
- 골프장 관리는 파크 빅토리아라는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며 골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함(관리요원은 골프장에 상주 안함), 운영은 개인이 함
- 골프장 유형은 프라이빗, 세미프라이빗, 퍼블릭 등
 - 세미프라이빗의 멤버십은 년 1,0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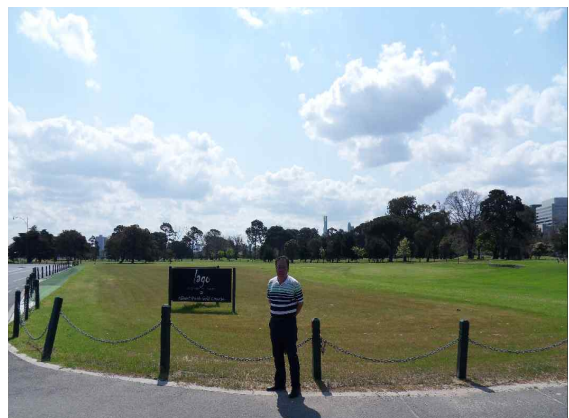
- 회원가입(평생회원, 년회원)은 위원회에서 결정
-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 : 평일(약 25\$), 주말(약 27~30\$)
- 우수한 골프장이 많기로 유명한 호주에서도 멜버른은 전세계 5위 안에 드는 로얄 멜버른 골프장(Royal Melbourne Golf Club)을 비롯해서 멜버른 주변에는 약 30개 빅토리아 전체로는 약 400여개 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샌드벨트 (Sandbelt)라 불리는 멜버른 남부 지역에만 약 20여개의 골프장이 촘촘히 모여 있으며, 그 중 로얄 멜버른을 비롯해서 킹스톤 히스(Kingston Heath), 빅토리아(Victoria), 메트로폴리탄 커먼웰스(Metropolitan Commonwealth), 헌팅 데일(Huntingdale), 야라야라(Yarra Yarra)와 페닌슐라(Peninsula)와 같은 호주에서 50위 안에 드는 최고의 멤버십 골프장 8개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음
- 샌드벨트와 이어지는 모닝턴 페닌슐라 역시 우수한 지형적 환경으로 인해 무나 링크스(Moonah Links), 더 네셔널(The National), 더 듀스 앤 케이프 성크(The Dunes and Cape Schanck) 같은 골프장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 외 야라 밸리와 그레이트 오션 로드도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페어웨이와 어려운 벙커, 잘 정돈된 그린이 시골 전원 풍경과 해변 경치와 더불어 환상적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유명 골프 클럽은 비회원에게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멜버른은 몇몇 클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의 이용에 대해 제약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음
- 편리한 접근성과 가까운 주변에 위치한 환상적인 관광지들 덕분에 멜버른은 메이저 골프 대회 목적지로 성장하였고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음
- 대표적인 호주 PGA 투어인 호주 마스터스 대회 (Australian Masters)가 매년 11월 멜버른에서 열린다. 올해는 빅토리아 골프 클럽(Victoria Golf Club)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해 우승자인 타이거 우즈(Tiger Woods)를 비롯해서 스페인의 세르지오 가르시아(Sergio Garcia), 콜롬비아의 까밀로 빌레가스(Camilo Villegas), 미국의 제프 오길비(Geoff Ogilvy)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 골퍼들이 대거 참가, 우승을 향한 샷을 날림
- 또한 2011년 로얄 멜버른 골프장에서는 프레지던트 컵(President Cup)이 열릴 예정이고 프레지던트 컵은 미국팀 대 세계연합팀의 국가간 대항전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998년 처음으로 멜버른에서 열렸으며 2011년 다시 한 번 멜버른에서 열림

① 골퍼들의 천국 멜버른 - 2011 프레지던트 컵 주최 확정

- 타이거 우즈의 참가로 주목을 모았던 호주 마스터즈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주최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멜버른이 2011년 프레지던트 컵 주최지로 최종 확정됨
- 전 세계 2억 7500만 명에게 생중계 되는 프레지던트 컵의 주최로 빅토리아주는 약 1600만 호주달러 (160억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멜번을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전세계적인 골프 관광지로 자리매김 함
- 2011년 프레지던트 컵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호주 최고의 골프장인 로얄 멜버른 골프 클럽에서 개최됨

② Albert Park Golf Course(알버트 파크 골프코스)

- 퍼블릭, 파72, 18홀
 - 멜버른시에서 운영(시내 한복판, 알버트 파크내 위치)
 - 요금 : 25\$, 캐디 없음
 - 골프장 주변에는 알버트 파크 호수, 체육관, F1 경주장, 호텔 등
- ※ 멜버른에는 국립과 사립 골프장 합해서 160개 이상이 있고 사립 골프장 그린피는 200\$ 이상임



<그림 5> Albert Park Golf Course

(2) 알버트 공원(Albert Park)

- 알버트 공원내 체육시설로는 F1 경주장, 축구장, 크리켓구장, 야구장, 호주식 축구장(풋티), 실내외 수영장, 요트클럽, 테니스클럽, 골프장(알버트 파크 골프코스), 론볼링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음
- 알버트 파크는 평소에는 조용한 시민공원이지만 대회기간에는 호수 주변을 도는 일반도로를 막아 F1 경주로와 20만명을 수용하는 조립식 관람석이 들어선 대규모 F1 그랑프리 경주장으로 탈바꿈함

※ 론볼링(ALBERT PARK/V.R.I BOWLS CLUB)

- 론볼링의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1299년 남햄프론 클럽에서 편심이 없는 석구(돌을 깎아 만듦)를 사용한 최초의 론볼링 경기가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그 후 호주 등에 보급되어 1880년에는 호주에서 NSW 론볼링 협회, 왕립 빅토리아 론볼링 협회 등이 설립됨
- 볼 또한 과학의 발달로 합성수지 제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영연방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일반인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1905년에 창립된 국제 론볼링 위원회가 1966년 현재 정식 등록된 전세계 33개국을 관장하면서 해마다 세계 챔피언 대회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림 6> 론볼링장 모습(알버트 파크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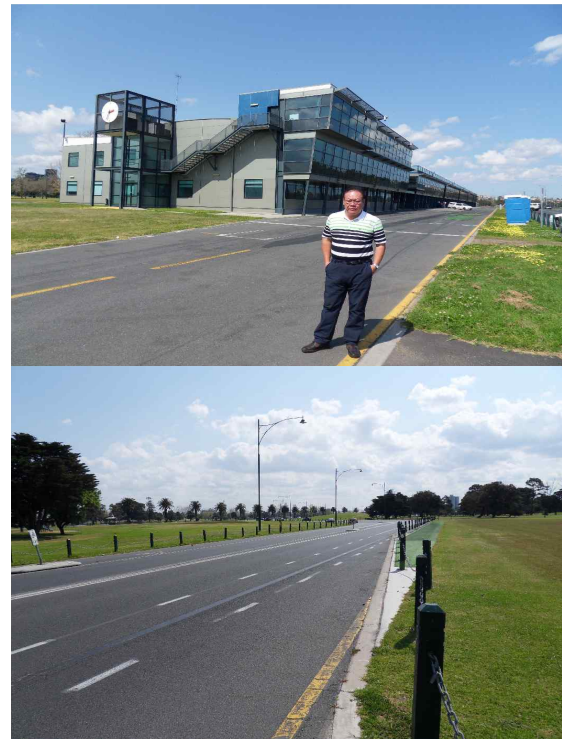
<그림 7> 론볼링을 즐기는 모습



<그림 8> 론볼링장 이정표

(3)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

- 매년 전 세계 17개 서킷을 돌며 펼치는 포뮬러원(F1) 서킷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가 3월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알버트 파크에서 펼쳐짐
- 호주는 지난 1985년부터 11년 동안 매년 마지막 서킷으로 11월경 호주 남부의 도시 아들레이드에서 포뮬러원(F1)을 개최해 왔지만, 1996년부터는 이곳 멜버른에서 그것도 연중 가장 먼저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매년 6만명의 외국 관광객들과 40만명이 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F1 경기를 즐기기 위해 멜버른을 찾고 있음



<그림 9> F1 자동차 경주장

(4) 멜버른 파크 개보수 실시

-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최소 3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 파크(Melbourne Park)를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지구로 탈바꿈할 프로젝트를 발표. 이에 따라 멜버른은 적어도 2036년까지는 계속해서 호주 오픈 테니스(Australia Open Tennis)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멜버른 파크의 개보수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마가렛 코트 아레나(Magaret Court Arena)에 개폐식 지붕을 달고 7,500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으로 시작. 이후 단계적으로 이스턴 플라자(Eastern Plaza)에 8개의 새로운 실내 코트와 13개의 실외 코트를 추가할 예정이며,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s)와 히센스 아레나(Hisense Arenas) 개보수, 주차장 확장, 멜버른 파크(Melbourne Park)와 사각 경기장(Rectangular Stadium) 사이에 인도교 추가 건설 등의 개보수가 시행될 예정임
- 이 개보수 작업은 현재 연간 600여 개 이상의 이벤트를 유치하며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올림픽 파크 지구(Olympic Parks Precinct) 프로젝트 이후로는 단일 최대 투자임
- 첫 단계의 마가렛 코트 아레나 프로젝트는 2015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맞춰 완공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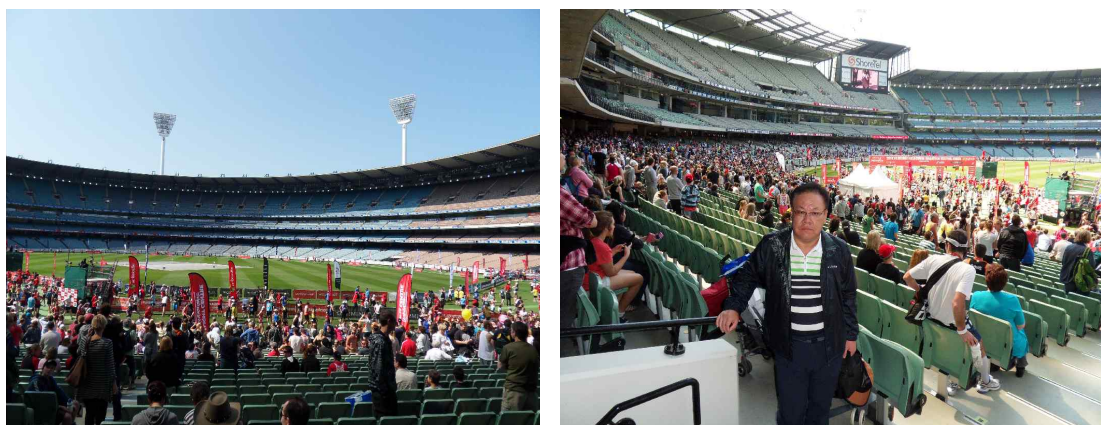
<그림 10> 멜버른 파크의 안내도 및 조감도

(5)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Melbourne Cricket Ground, MCG)

- 위치 : 멜버른, 빅토리아
- 주소 : Brunton Avenue, Richmond 3002
- 좌석 : 100,000석, 조명시설 완비
- 경기장 지붕 : 없음
- 스포츠 경기 : 호주 축구, 크리켓, 럭비 리그, 럭비 유니온, 축구
- 홈 팀 : Hawthorn FC, Richmond FC, Collingwood FC, Melbourne FC, Victorian Bushrangers
- 연간 행사 : AFL Grand Final, Boxing Day Test
- 역사적인 행사 : 1956년 멜버른 올림픽, 2006년 멜버른 커먼 웰스 게임, 1992년 크리켓 월드컵 결승, 2000년 시드니 올림픽
- 약도 : 도심에서 약 1km 위치
- 멜버른에서 THE AGE 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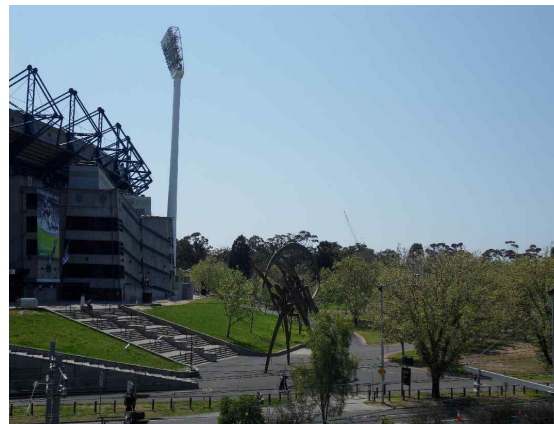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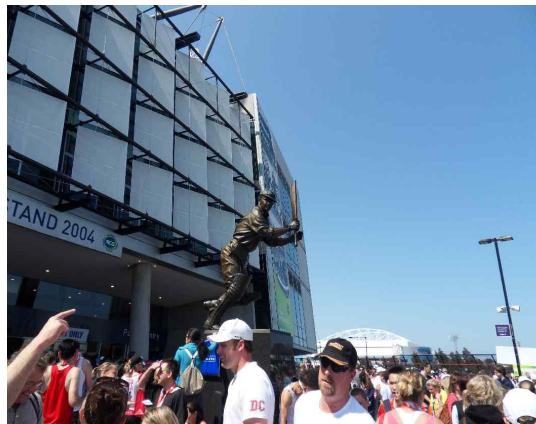
<그림 11>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의 외부 모습



<그림 12>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의 내부 모습



<그림 13>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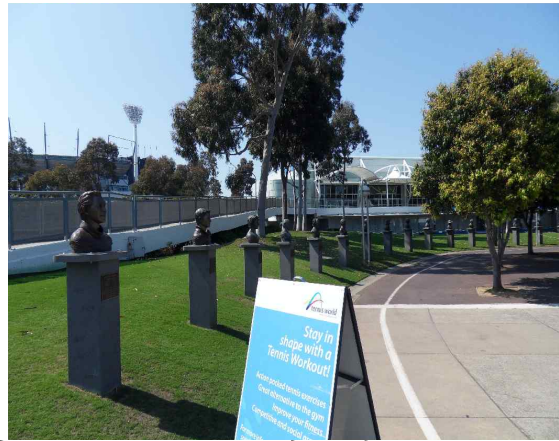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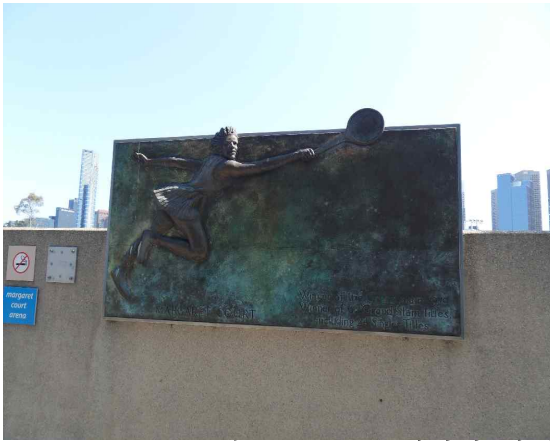
<그림 14>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의 조형물

(6)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

- 원래는 테니스장이었으며 이 경기장은 원래 멜버른 출신으로 1960년대 세계 남자 테니스를 평정했던 로드 레이버(69)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진 것임
- 따라서 호주 오픈은 레이버를 기념하기 위해 멜버른 공원에 코트를 로드 레이버 아레나로 명명했음
- 테니스 코트는 관중석보다 3m 가량 깊은데서 착안했고 코트 위에 짧은 빔을 촘촘히 세운 뒤 그 위에 2.5m 정도 깊이의 수영장을 만들었으니 육조를 그대로 얹어 놓은 셈
- 이곳에서는 멜버른 파크의 테니스 센터의 중심이고 테니스 경기, 오토바이 슈퍼-크로스 경기, 음악 콘서트, 컨퍼런스, 2005년 이래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와 발레 등도 열림



<그림 15>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 외·내부 모습



<그림 16>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의 조형물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 매년 1월 멜버른 파크에서 개최되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는 영국의 Wimbleton 테니스, US오픈, 프랑스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그랜드슬램 중 하나로 새해에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이기에 세계 테니스계의 판도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테니스 대회임
-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는 15,000명 규모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 6,000석의 마가렛

코트 경기장 등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경기장들이 주 무대이고 개폐형 지붕을 사용하고 있어 우천 시 또는 기온이 너무 높을 때는 지붕을 폐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4대 그랜드슬램 경기장 중에는 유일함

(7) 렉서스 센터

- 현재는 렉서스 센터(로드 레이버 경기장 길 건너편에 위치)지만 예전에는 올림픽 수영장이었음
- 1956년 하계 올림픽에 사용된 수영장으로 올림픽 최초의 인도어 풀이었음
- 1980년대에 건물을 재보수 했고 Melbourne Sports and Entertainment Centre(Glass House)라고 불렀음
- 이때부터 수영장이 아니라 농구 경기를 주로 했고, 2004년 에 렉서스가 이 경기장의 이름과 사용권한을 사들여 이후로는 경기장이나 콘서트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Victorian Institute of Sport and the Collingwood Football Club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7> 렉서스 센터

(8) 그레이드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 서부해안을 끼고 질론(Geelong)의 근교인 토키(Torquay)에서 워넘불(Warnambool)을 잇는 243km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귀향한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1919년에 이 도로를 착공, 공사 13년만인 1932년에 개통
- 매년 5월 빅토리아 멜버른에서 절경 그레이드 오션 로드를 따라 달리는 그레이드 오션 로드 국제 마라톤 대회(Great Ocean Road International Marathon)가 열림



<그림 18> 그레이드 오션 로드



<그림 19> 그레이드 오션 로드 이정표

(9) 승마

- 멜버른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승마장 많음
- 2시간 승마에 50~80\$

[멜버른 컵(Melbourne Cup)]

- 매년 봄과 함께 시작되는 호주 최대의 경마축제인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Spring Racing Carnival)은 약 50일간 계속되며 재미와 패션, 그리고 말들의 화려한 향연이 펼쳐지는 세계 경마대회 중 가장 수준 높은 행사
- 플레밍턴 경마장(Flemington Racecourse)에서 열리는 멜버른 컵은 전체대회 중 가장 큰 우승 상금이 걸려있고, 올해로 150주년을 맞이한 멜버른 컵은 매년 첫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림
-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의 하이라이트로 멜버른 컵 경마대회는 호주 전역과 세계 120여개국에 생중계되며 7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벤

트입

- 우승상금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해는 약 6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60억원)의 상금이 마련되어 있고 이날 빅토리아는 공식적으로 휴일
- 15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올 해의 멜버른 컵에는 해외 참가자 45명을 포함해서 총 253명의 참가자가 신청을 마친 상태
-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은 단순한 경마대회를 뛰어 넘어 일년 중 가장 화려한 패션 축제의 하나로 유명

(10) 호주의 계절별 스포츠

- 여름철 경기 : 크리켓, 수영, 하키, F1, 테니스, 골프 등
- 겨울철 경기 : 럭비, 오지풋볼, 풋티, 축구 등

(11) 2011년 호주 멜버른 국제 스포츠이벤트 캘린더

① 호주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Australia Open Tennis Championship)

- 기간 : 2011년 1월 17일 - 30일
- 2011년 테니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가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파크(Melbourne Park)에서 개최되고 호주 오픈은 영국의 Wimbleton 테니스, US 오픈, 프랑스 오픈과 더불어 4대 그랜드 슬램 중 하나. 특히 프로 테니스 대회 중 새해에 가장 먼저 열린다는 점에서 한 해의 테니스계의 판도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② F1 호주 그랑프리 대회(Formula 1 Australia Grand Prix)

- 기간 : 2011년 3월 25일 - 28일
- 매년 3월, 호주 멜버른의 알버트 파크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F1 호주 그랑프리 대회가 사흘간 펼쳐지고 대회 서킷인 알버트 파크는 평소에는 조용한 호수 공원이지만 F1 대회 기간 동안에는 호수 주변을 도는 일반 도로를 막아 F1 대회 서킷과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조립식 관람석을 만듦

③ 그레이트 오션 로드 국제 마라톤 대회(Great Ocean Road International Marat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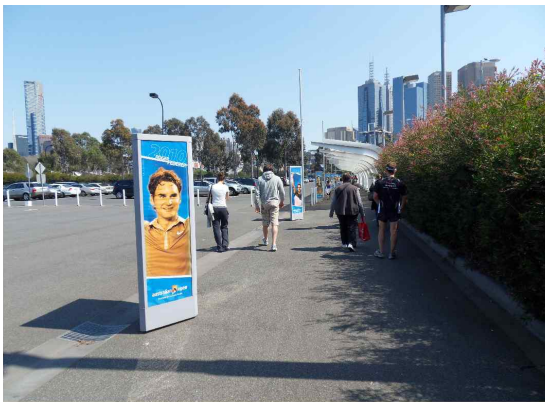
- 기간 : 2011년 5월
- 빅토리아의 절경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달리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국제 마라톤 대회가 매년 5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고 45km 구간의 풀코스 마

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험난한 코스로 손꼽히고 있음

- www.greatoceanroadmarathon.com.au

(12) 기타

- 호주는 풍요의 나라이며 경마와 복권, 도박의 나라이고 호주의 스포츠는 신앙과 같은 존재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큰 나라임(세계에서 6번째 큰 나라)



<그림 20> 멜버른 시가지 모습

■ 시사점

- 명품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하여 유명선수 초빙과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한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자 등의 스포츠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국제대회 등 스포츠 행사유치는 물론 지역 특유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틈새산업으로써 스포츠관광개발 전략 필요
- 스포츠이벤트와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각 종목별 팀에 대하여 스포츠 시설, 관광안내 등 적극적 유치 활동 전개 필요
-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연계한 전지훈련 팀 유치
 - 전지훈련 기간 경기력을 점검할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 참가는 경기 시즌을 대비한 팀 관계자의 전술 운용 점검, 선수의 컨디션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다수의 팀을 유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 멜버른 파크, 알버트 파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훈련의 목적이 경기력 향상이니만큼 다수의 팀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의 집적화가 필요 하고 전지훈련 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호주의 골프는 서민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됨. 따라서 우리 도의 골프산업도 가격경쟁력 강화 등 골프 대중화와 관련된 정책 등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함
-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보듯 우리 도의 풍광이 수려한 해안도로나 베스트 드라이브 도로 등을 활용한 마라톤이나 사이클 등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